



# 통신서비스업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김희재 hoijae.kim@daishin.com

## 1. 주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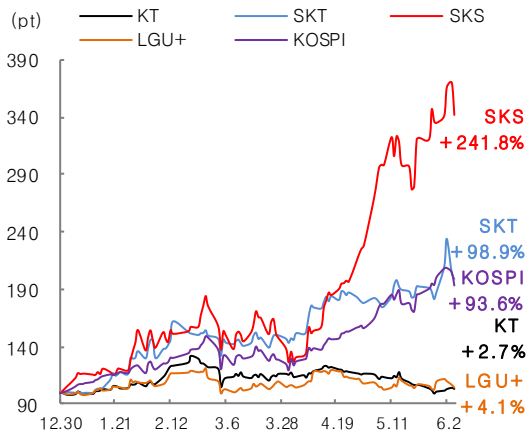
기업	25/12/30	05/29	06/05	연간 상승	수익률	주간 상승	수익률	12MF DPS	배당수익률	주간 그래프
SKT (017670)	53,500	100,600	106,400	▲ 52,900	▲ 98.9%	▲ 5,800	▲ 5.8%	3,320	3.1	
SK스퀘어 (402340)	368,000	1,233,000	1,258,000	▲ 890,000	▲ 241.8%	▲ 25,000	▲ 2.0%			
KT (030200)	52,600	52,800	54,000	▲ 1,400	▲ 2.7%	▲ 1,200	▲ 2.3%	2,500	4.6	
LGU+ (032640)	14,720	16,130	15,320	▲ 600	▲ 4.1%	▼ 810	▼ 5.0%	700	4.6	
KOSPI	4,214.2	8,476.2	8,160.6	▲ 3,946.4	▲ 93.6%	▼ 315.6	▼ 3.7%			

### 주가 Comment

- 주가 코멘트: **아직은 AI 보다는 주주환원을 투자포인트로**
- 통신 주간 +2.8%, KOSPI -3.7%. YTD 통신 +37.8%, 지수 +93.6% SKT와 LGU+는 쎌슨 황 효과를 상당부분 반납
- 5/28 대비 SKT는 +29% 급등 후 급락, +9.8%로 마감. LGU+는 +9% 상승 후 하락, +1.7%로 마감. 동기간 KT는 꾸준히 상승, +4%로 마감
- SKT는 엔비디아와의 디지털 트윈 협력, 엔트로픽의 IPO 신청 소식 등이 급등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실적 요인은 아니어서 급등 후 하락. LGU+는 엔비디아와 LG 그룹주의 피지컬 AI 협력이 LGU+에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상승했으나, 역시 당장 가시화되는 부분은 없어서 하락
- AI 붐업에 통신이 동참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주목을 받아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DC외에는 뚜렷한 BMI이 없기 때문에, 통신에 대한 투자포인트로 AI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 시장이 급등락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 성장과 높은 주주환원 매력을 투자포인트로 봐야할 것
- TSR이 6%로 가장 높고, 현재 자사주 2.5천억 취득이 진행 중인 KT가 현실점에서는 가장 투자에 적합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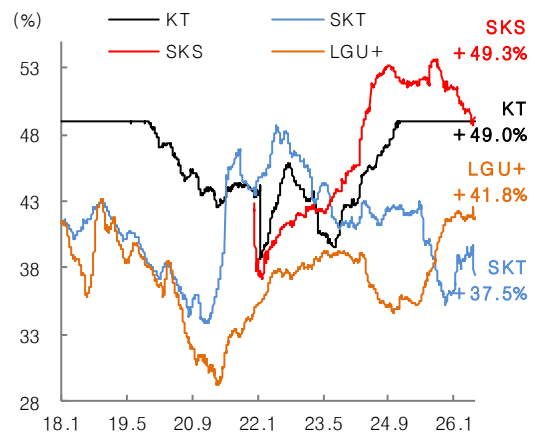
## 2. 주가 차트

### 26년 YTD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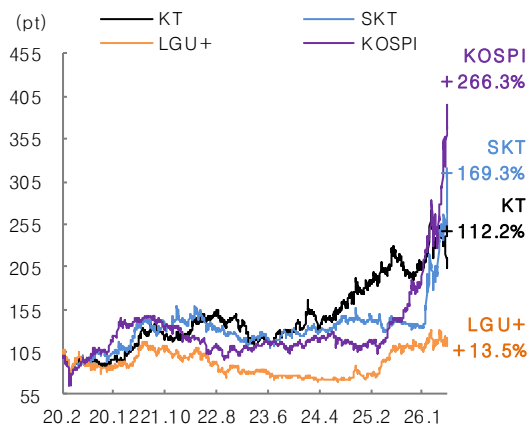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외인 지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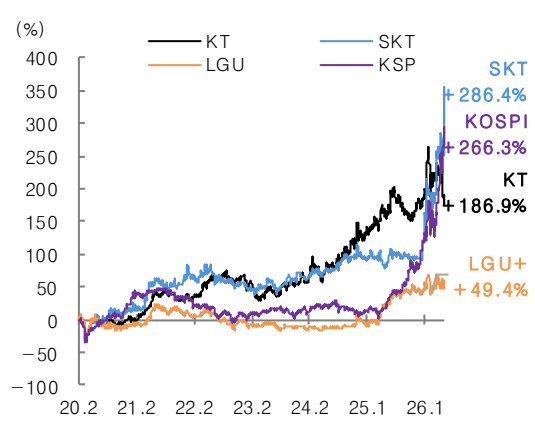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주가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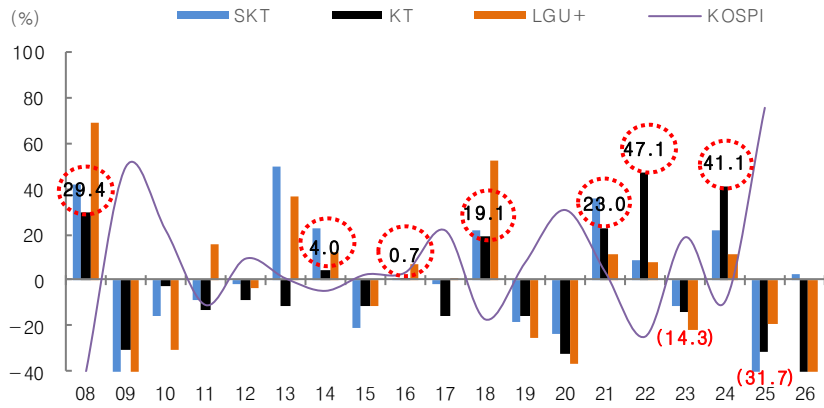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ARPU 턴어라운드(4Q19 실적발표) 시점 대비 배당 재투자 수익률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YTD 주가 상승률(KOSPI 대비 상대 수익률).  
 SKT +98.9%(-2.7%), KT +2.7%(-47.0%), LGU+ +4.1%(-46.3%)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6년초부터 SKT의 급등으로 26.2월 기준 통신업은 KOSPI 대비 아웃퍼폼

	SKT	KT	LGU+	KOSPI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상대수익률
19	(11.7)	(9.4)	(19.5)	7.7	(18.0)	(15.9)	(25.3)
20	0.0	(11.1)	(17.3)	30.8	(23.5)	(32.0)	(36.7)
21	41.0	27.5	15.7	3.6	36.1	23.0	11.7
22	(18.1)	10.5	(18.8)	(24.9)	9.0	47.1	8.2
23	5.7	1.8	(7.4)	18.7	(11.0)	(14.3)	(22.0)
24	10.2	27.5	1.0	(9.6)	21.9	41.1	11.7
25	(3.1)	20.0	42.5	75.6	(44.8)	(31.7)	(18.9)
26	98.9	2.7	4.1	93.6	2.7	(47.0)	(46.3)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주: 파란색 음영은 통신3사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주황색 음영은 지수 대비 상대수익률이 (+)이면서 가장 높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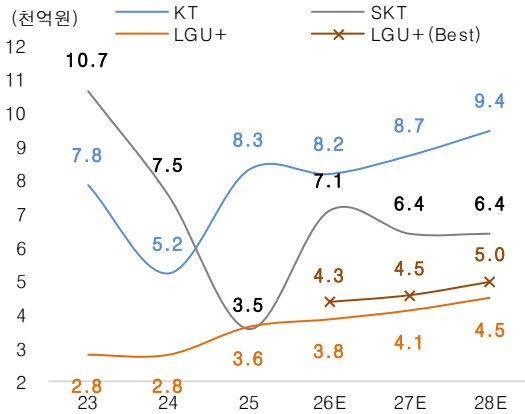
3. 주간 코멘트

SOTAK 재정비 검토, 5월 번호이동, 5G-LTE 통합요금제, SKT 프로젝트 글라스wing, 안면인증 아시아 확산

<p><b>KT</b></p> <p>SOTAK 재정비 검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KT가 MS 협력 기반 한국형 AI 모델 'SOTAK' 운영 방향 검토. 출시 이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서비스 종료 가능성까지 포함한 후속 전략 논의</li> <li>2. SOTA K는 24년 KT와 MS 전략 협력 이후 GPT-4o 기반으로 개발된 한국형 AI 모델. 한국어 이해와 생성·추론·전문지식 영역 중심 성능 차별화 전략으로 양사 협력 상징 역할 수행</li> <li>3. 그러나 글로벌 생성형 AI 모델 고도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며 경쟁력 유지 부담 확대. 최신 모델 등장 때마다 추가 개발과 재학습이 요구되는 구조 속 비용과 인력 효율성 문제 부상</li> <li>4. KT 내부에서는 SOTA K를 유지하기보다 다른 AI 모델로 대체하는 방안 중심의 검토 진행. 자체 초거대언어모델 '민·음' 활용 확대와 내부 서비스 전환 가능성이 함께 논의되는 흐름</li> <li>5. SOTA K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한국어 데이터와 튜닝 노하우는 향후 자체 AI 경쟁력 강화 자산 역할 전망. 축적된 데이터 기반 모델 고도화와 기업용 AI 서비스 확대 전략으로 연결 가능성 부각</li> <li>6. KT는 구체적 운영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 유지. MS와 협력 관계 지속 강조. 특정 모델 경쟁보다 자체 AI 역량과 서비스 효율성 중심 전략 재정비</li> </ol>
<p><b>중립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하에 소비인 AI 시대를 대비하겠다는 방향은 긍정적. 다만, MS와 협력을 선언한지 2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 구체적인 BM이 등장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쉬움</li> </ul>
<p><b>산업</b></p> <p>5월 번호이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난 5월 이동전화 번호이동 건수가 58.4만건 기록하며 전월 대비 3.1% 증가. 최근 수개월간 위축됐던 번호이동 시장이 단말 지원금 경쟁 영향 속 반등</li> <li>2. 통신 3사 모두 순증 기록한 가운데 SKT가 7,224건 증가하며 가장 큰 가입자 유입 성과 확보. LGU+ 2,538건, KT 1,449건 순증 기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강한 회복세</li> <li>3. 반면 알뜰폰 시장은 1.1만건 순감 기록하며 가입자 이탈 흐름 확대. 알뜰폰에서 통신 3사로 이동한 가입자가 유입 규모를 크게 상회하며 성장세 둔화 신호</li> <li>4. 특히 SKT SMS 알뜰폰 가입자 3만8852건 흡수하며 가장 적극적인 가입자 확보 전략 전개 흐름. 최근 저가 요금제 강화와 지원금 확대 정책이 알뜰폰 고객 유지 효과로 연결된 모습</li> <li>5. 번호이동 증가 배경에는 가정의 달 스마트폰 교체 수요와 갤럭시 S26 지원금 경쟁 확대 요인 결합. 공시지원금 인상과 판매점 추가 보조금 지급 사례 확산 속 소비자 이동 수요 증가 흐름</li> <li>6.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며 가입자 확보 경쟁 중심 시장 구조 변화 지속. 통신 3사 마케팅 경쟁 심화와 알뜰폰 가입자 감소 현상이 향후 시장 재편 변수로 부상</li> </ol>
<p><b>긍정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년 하반기와 26년초 SKT 및 KT의 해킹 사고 관련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번호이동이 증가하면서 과열에 대한 우려 제기</li> <li>■ 마침 25년 하반기에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과열에 대한 우려 증폭. 하지만, 번호이동 건수의 일시적 증가 후 월 50~60만건 수준으로 안정</li> <li>■ 유무선 결합 할인과 장기 고객 대상 혜택 증가 등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li> </ul>
<p><b>산업</b></p> <p>5G-LTE 통합요금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KT는 7/1부터 기존 5G와 LTE로 이원화됐던 요금 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신규 통합요금제 출시</li> <li>2. 다양한 요금제와 복잡한 상품 구조로 인해 발생했던 고객 선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li> <li>3. 기존 105종의 요금을 18종으로 대폭 간소화하고 전구간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 도입</li> <li>4. LGU+는 6/1 출시. 기존 53종의 요금제를 18종으로 단순화</li> <li>5. SKT는 7/2 출시. 기존 67종인 요금제를 16종으로 단순화</li> </ol>
<p><b>긍정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E의 가입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고, 소비자들 및 정부에서도 요금제 통합에 대한 니즈가 강했기 때문에 통합요금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li> </ul>
<p><b>SKT</b></p> <p>SKT 프로젝트 글라스wing</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SKT가 엔트로픽 주도의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체계 프로젝트 글라스wing에 합류. 생성형 AI 기반 보안 검증 체계 구축과 국가 디지털 인프라 방어 역량 강화 목적</li> <li>2. 프로젝트 글라스wing은 엔트로픽의 고성능 AI 모델 클라우드 미토스를 활용하는 국제 협력.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해 소프트웨어 취약점 탐지와 대응 체계 공동 검증 추진</li> <li>3. 엔트로픽은 강력한 AI 모델의 약용 가능성을 고려해 제한적 조기 접근 방식 채택. 참여 기관 대상 선제 제공을 통해 공격 시나리오 분석과 방어 역량 확보</li> <li>4. SKT는 이번 참여를 통해 클라우드 미토스 조기 접근 권한 확보 성과. 핵심 통신 인프라와 AI 서비스의 취약점 탐지 체계 고도화 기반 마련</li> <li>5.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참여 대상 기업으로 거론되는 상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역시 협력 범위 내 포함</li> <li>6. 통신 인프라 기업과 반도체 기업, 정부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협력 확대 흐름. AI 활용 보안 체계 선점 경쟁과 국가 차원의 디지털 안보 강화 움직임</li> </ol>
<p><b>중립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엔트로픽의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SKT는 26년 주가 급등. 비즈니스까지 같이 하게 되면 단순 지분가치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li> </ul>
<p><b>산업</b></p> <p>안면인증 아시아 확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부가 6월 30일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상용화, 보이스피싱과 대포폰 차단 목적의 본인확인 체계 강화. 기존 신분증 스캔 방식의 위변조 식별 한계 보완과 실명 인증 정확성 제고</li> <li>2. 개통 절차는 QR코드 PASS 인증 화면에서 얼굴 인식 수행. 이용자 편의성과 신속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통신 유통 현장 정착 단계 진입</li> <li>3. 안면정보는 변경 불가능한 생체정보라는 특성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우려 지속 제기. 정부는 안면인증 중심 체계를 유지하면서 모바일 신분증 등 대체 인증 수단 병행 검토</li> <li>4. 태국은 25년 SIM 실명등록 과정에 라이브니스 기반 안면인증 의무화 도입. 사진이나 딥페이크가 아닌 실제 이용자 여부 확인을 위해 눈 깜빡임 등 동작 인식 기술 활용</li> <li>5. 태국의 경우 스캠전화와 피싱 피해 확산, 과도한 회선 유통 구조가 제도 도입 배경. 안면인증 시행 이후 미등록 회선과 중복 회선 정리 효과 기대 속 가입자 수 감소 전망</li> <li>6. 인도네시아 역시 전국 단위 안면인증 시행 준비 단계 진입. 아시아 국가 전반에서 디지털 금융사기와 대포회선 대응을 위한 생체인증 기반 통신 가입 관리 강화 추세</li> </ol>
<p><b>중립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면인증이 본인확인 체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좋지만, 과도한 인증체계 도입은 편의성 측면에서 시장의 외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전산 개발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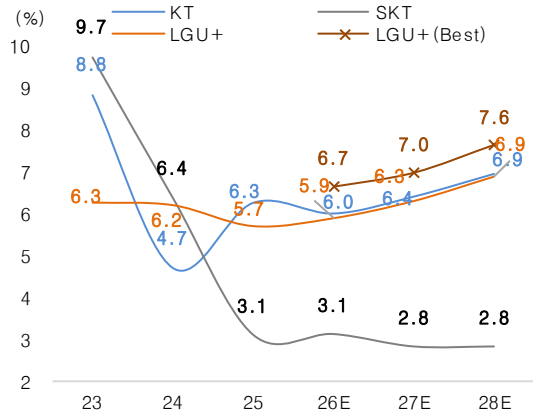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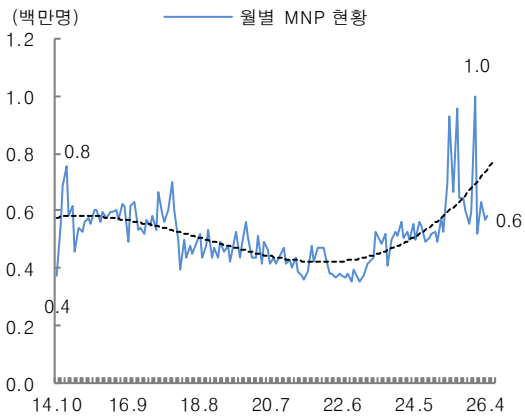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통신사 주주환원 총액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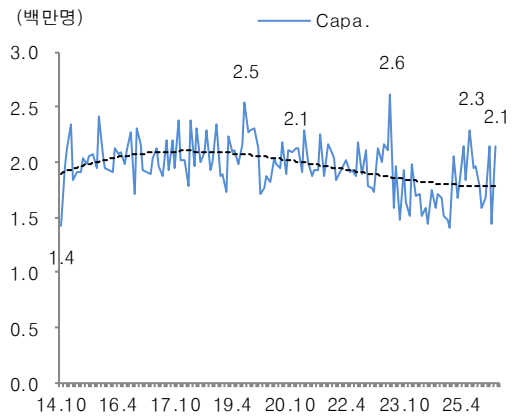
자료: 각사IR, 추정은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번호이동(26.5월) 584천명, +18천명 mom. 25년 평균 656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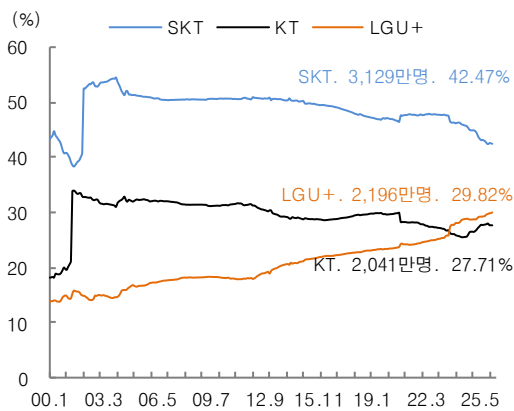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apa.(신규 + 번이 + 기변) 214만명(26.3월). 24년 평균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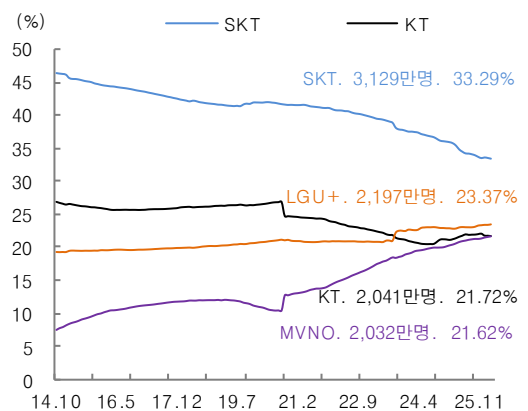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6.3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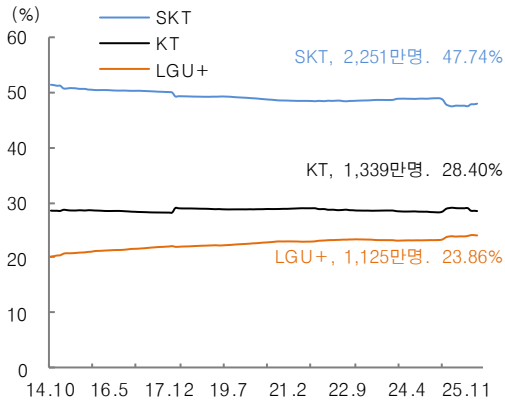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점유율(26.3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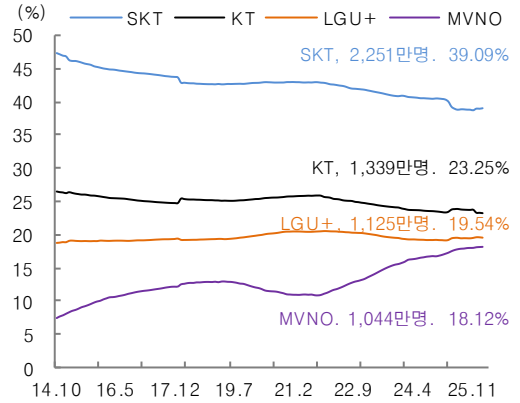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6.3월). MNO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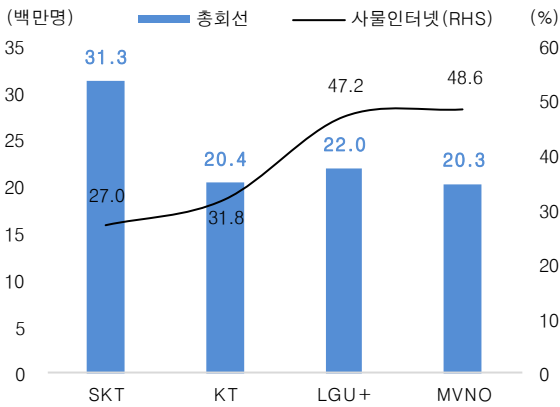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점유율(26.3월). MVNO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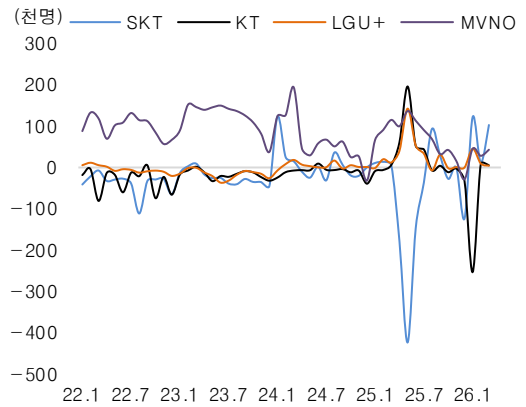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총회선 vs. 사물인터넷 비중(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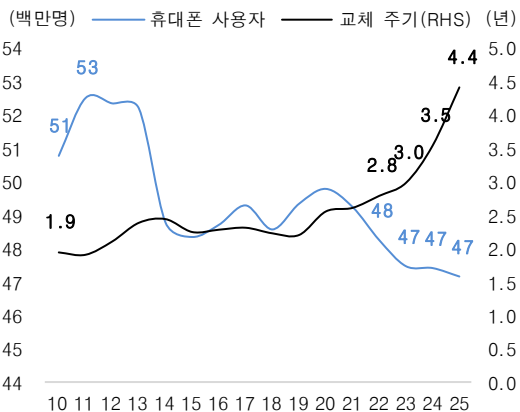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순증(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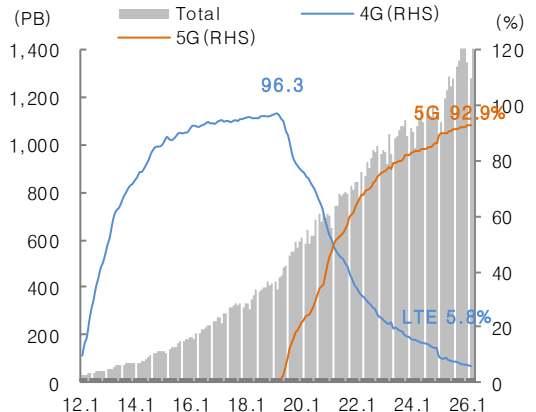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교체주기 4.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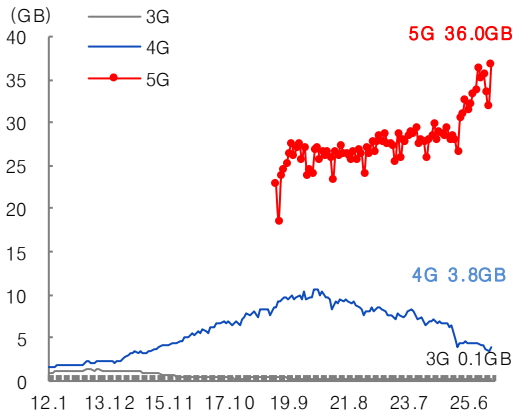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비중 92.9%(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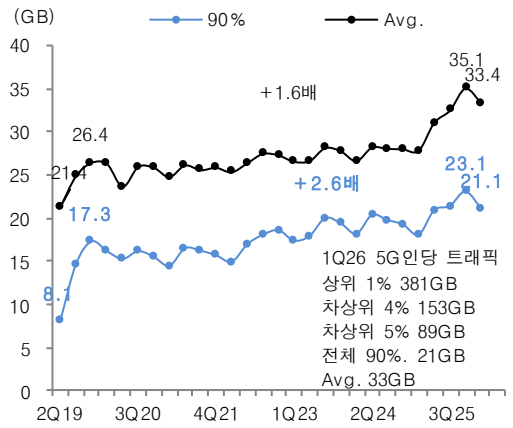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인당 월평균 5G 트래픽 36.0GB(26.3월), +4.0GB m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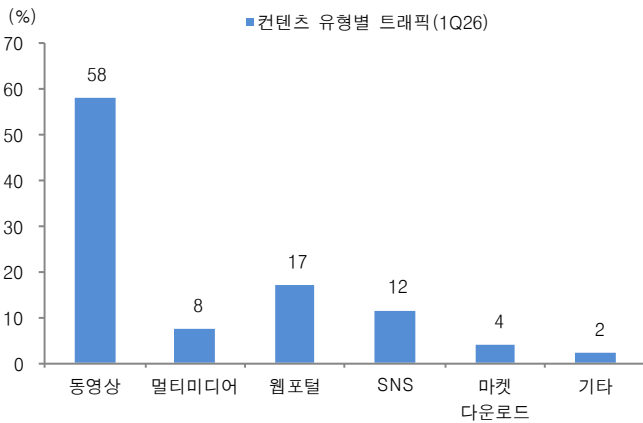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트래픽 추이(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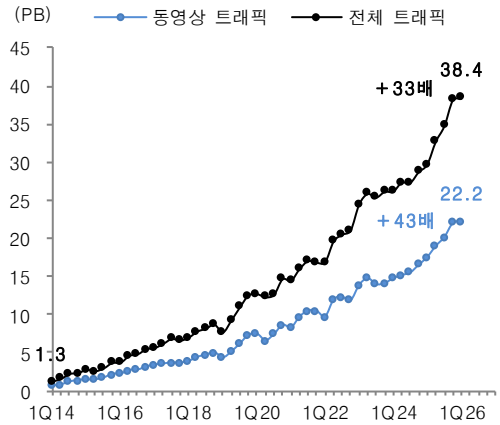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콘텐츠 유형별 트래픽(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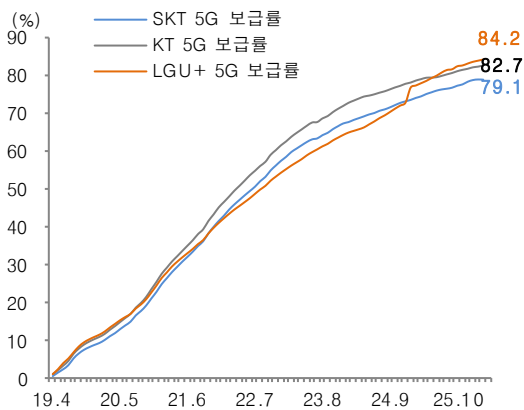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동영상 트래픽 vs. 전체 트래픽(1Q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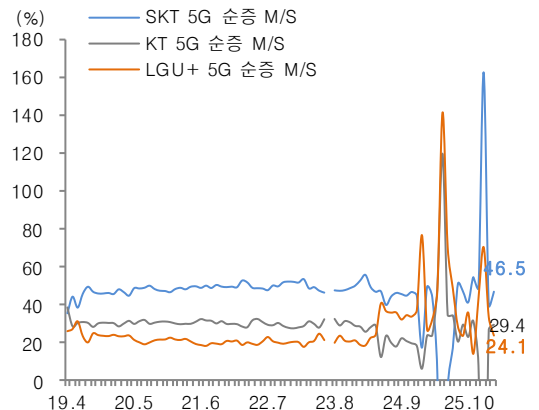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휴대폰 대비 5G 보급률 81.3%(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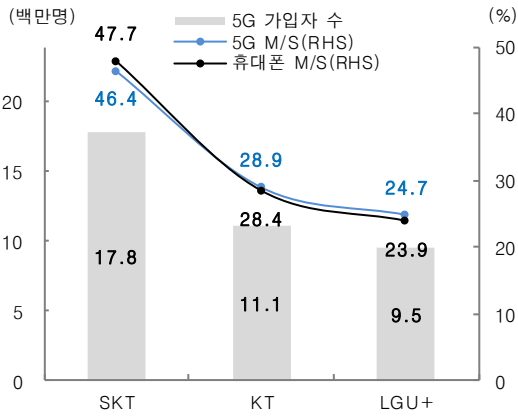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순증 점유율(26.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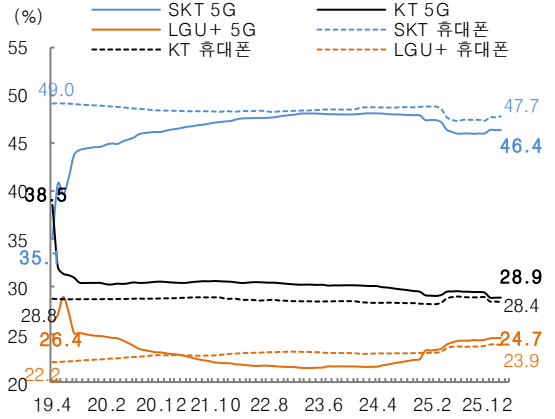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6.3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G 점유율 vs. 휴대폰 점유율(26.3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김희재)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